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김 시 연

서 영 석[†]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스트레스-대처이론과 결혼만족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지각된 배우자지지가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 관계를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배우자간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Kenny, 1996)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87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배우자지지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우선 스트레스 → 결혼만족, 스트레스 → 배우자지지, 배우자지지 → 결혼만족의 모든 경로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지지가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 관계를 매개하는 부분매개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 및 배우자지지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를 Sobel 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먼저 남편과 아내의 스트레스는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남편들에게서는 자기효과가 더 큰 반면 아내들에게서는 상대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남편과 아내 간 성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 상담에 대한 시사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스트레스, 결혼만족, 지각된 배우자지지,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 본 논문은 김시연(2008)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를 재분석하여 작성한 것임.

†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 02-2123-6171, E-mail : seox0004@yonsei.ac.kr

통계청(2008) 자료를 토대로 우리사회의 이혼양상을 살펴보면,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관찰된다. 첫째, 과거에는 결혼 후 5년 이내의 젊은 층에서 이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구성비가 전체 이혼 중 19.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1996년의 8.9%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이혼이 결혼초기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생활 주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과거에는 외도, 폭행 등 결혼생활의 근본을 해치는 문제들이 이혼의 주된 사유였다면, 점차 성격 불일치, 생활양식 부조화 등 이혼사유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셋째, 과거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을 망설이고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전체 이혼의 60.7%가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더 이상 이혼의 억제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혼양상의 변화는 부자관계 중심이던 가족구조가 부부관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배우자 간 상호 신뢰와 지지가 결혼생활 적응과 유지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혼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개인의 능력과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쟁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사람들은 주요 타인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를 원하는데, 특히 결혼생활 당사자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공감, 배려, 사랑, 수용 등 정서적 지지를 기대한다(Cutrona, 1996). 실제로, 부부 간 긍정적 지지는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ehle, Larsen, & Landers, 2001), 스트레스가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sch, Bradbury, & Cutrona, 1996). 반면, 부부관계에서 정서적 지지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외부 환경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관계 안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된다(Guilford & Bengtson, 1979; Julien, Markman, & Lindahl, 1989). 이는 결국 결혼생활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Gottman, 1994; Jacobson & Margolin, 1979).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생활의 해체를 방지하고 가정이 정서적인 안식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에 긍정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변수 간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부 환경 변수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자 지지가 매개하는 과정을 부부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적응 간 단순 인과적 관계보다는 이 관계를 매개하거나 중재하는 제 3의 요인들을 찾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다(김시연, 서영석, 2008; 장춘미, 2009; Brock & Lawrence, 2008; Cohen, Kessler, & Gordon, 1995; Solomon, Dekel, & Zerach, 2009). 이러한 연구 동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 인지 현상학적 이론에 근거한 스트레스

-대처이론이다(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이 이론에 따르면, 유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개인의 지각, 통제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제 대처행동에 따라 사람들의 적응수준이 달라진다. 즉,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통제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적응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대처이론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사회적 지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는 지지 또는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Vinokur & Ryn, 1993). 선행 연구 결과,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고,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례, 2006; 김시연, 서영석, 2008; 김정희, 1987; 장춘미, 2001; Beeman, 1993; Cohen & Wills, 1985; Simons, Lorenz, & Wu, 1993).

한편, 결혼생활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지지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 배우자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Cutrona, 1996), 남편과 아내는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기대한다. 실제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부부간 지지행동이 배우자의 적응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편의 지지가 취업여성의 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억제시켜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Burke & Weir, 1982), 부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상관없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utrona, 1996; 김시연, 서영석, 2008 재인용).

상호 역동적 관점 및 선행연구의 문제점

한편, 최근 수행된 결혼 관련 연구들은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Bradbury, Fincham, & Beach, 2000). 특히,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구조적, 기능적론 관점에서 벗어나 부부관계를 구성하는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Karney와 Bradbury(2000)는 부부의 정서적, 애정적 요소가 부부 간 적응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부 간 정서적 상호작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부 간 상호작용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연구들이 부부 또는 커플 중 한 명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서만 자료를 수집하여 관계가 지닌 상호역동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성한기, 손영화, 2007; 이회숙, 박경, 2008; 현경자, 2007; 한혜영, 현명호, 2006; Gorchoff, John, & Helson, 2008; Madathil, & Benschhoff, 2008; Rosen-Grandon, Myers, & Hattie, 2004). 또한 비록 부부 모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상호의존적인 짝 자료를 독립적인 자료로 가정하고 분석하여(김시연, 서영석, 2008; 장춘미, 2001; 전영민, 2000) 제 1종 오류가 증가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Kenny, 1996). 즉, 부부의 결혼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연구 설계와 자료 분석의 한계로 인해 배우자 간 상호작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연구결과의 타당도가 훼손되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Kenny(1996)는 부부 및 커플 등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 이하 APIM)을 제안하였다. APIM은 관계에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대인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Cook & Kenny, 2005; Cook & Snyder, 2005). 많은 연구에서 APIM은 가족(Rayens & Svavardottir, 2003), 친밀한 관계(Campbell & Kashy, 2002), 소그룹(Bonito, 2002)에 대한 자료를 분석할 때, 그리고 부부치료의 성과(Cook, 1998; Cook & Snyder, 2005)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Cook & Kenny, 2005).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상호의존적인 측면을 반영하고자 부부 모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배우자지지의 매개모형을 검증함에 있어서, 각 배우자의 영향력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APIM을 사용하여 쌍으로 수집된 부부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

APIM은 부부처럼 짝 관계(dyad)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써,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자료를 분석할 때 사용한다(Cook & Kenny, 2005). APIM에서는 짝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료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커플을 분석 단위로 하며 커플의 수가 표본의 크기가 된다. APIM에서는 두 가지 효과, 즉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존재한다. 자기효과(actor effect)는 자신의 특성(H1)이 자신의 결과(H2)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며,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는 상대방의 특성(W1)이 자신의 결과(H2)에 미치는 영향을 지칭한다(그림 1). 한편,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APIM에서는 독립변수 간 상관과 잔차 점수(residual score)간 상관을 가정한다(Cook & Kenny, 2005; Cook & Snyder, 2005). 우선 독립변수 간 상관을 가정하는데, 예를 들어 짝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 간에 상관을 설정한다(Cook & Snyder, 2005). 또한 잔차(residual)간 상관(r_1 과 r_2 간 상관)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즉, H2와 W2라는 종속변수를 추정할 때 H1과 W1으로 추정되지 않는 부분(잔차)이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자녀 등 제 3의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H2와 W2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ok & Kenny, 2005). 잔차 간 상관을 가정하면 연구자가 설정한 독립변수들의 순수한 설명량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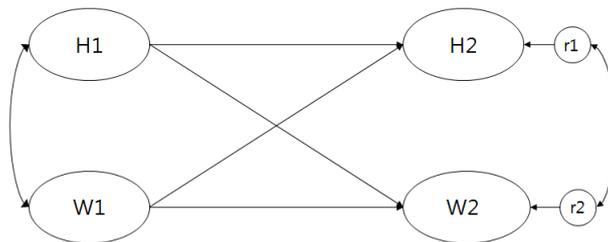


그림 1.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즉, 제 3의 변수의 영향이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모형에서 추정된 값을 H1과 W1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게 된다. APIM을 사용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중다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다층모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은 비교적 간단하게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모형 검증을 통해 얻은 추정치들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ook & Kenny, 2005). 또한 변수가 잠재변수일 경우 측정오차를 고려하기 때문에, APIM을 사용한 자료 분석에서 권장되고 있다(Kenny, Kashy, & Cook, 2006).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대처 이론과 선행 연구들(김시연, 서영석, 2008; 장춘미, 2001)을 토대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 관계를 배우자지지가 매개하는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그림 2)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때, APIM을 사용하여 각각의 직접 경로 및 간접 경로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한지,

그리고 각각의 효과가 배우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자 간 상호역동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고, 특히 결혼 당사자 개인의 특성 및 지각 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특성 및 지각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결혼만족에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부부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스트레스가 배우자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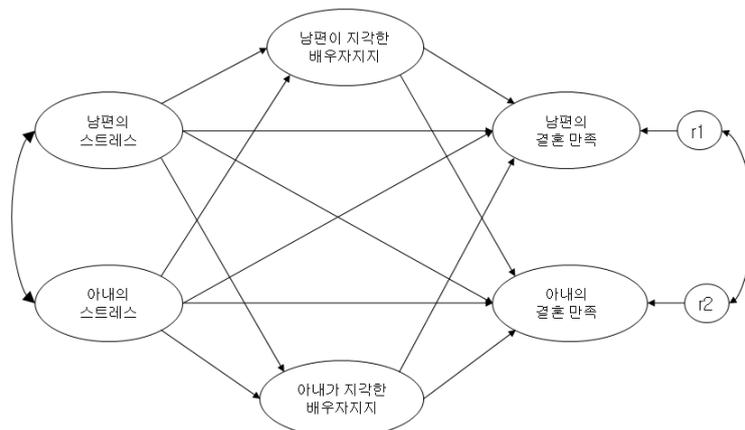


그림 2. 연구 모형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둔 부부 중 결혼 연한이 2년 이상 된 30, 40대 부부들을 연구 참여자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결혼기간과 자녀 유무가 결혼만족도에 편파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Karney & Bradbury, 1995).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 지역 3개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그리고 경기도에서 각각 2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자가 미리 해당 교육기관의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교사들은 원생과 학생들을 통해 부모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유치원의 경우 설문지의 사용목적 및 실시방법에 관한 글을 가정통신문에 넣어 전달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를 봉투 겉면에 붙여 학생 편에 전달하였다. 설문지는 남편용과 아내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응답내용을 비밀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고, 설문이 끝난 후에는 설문지를 회수용 봉투에 밀봉하도록 하였다.

총 12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693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110부, 한 배우자만 응답하였거나 부부의 짝을 지을 수 없는 217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74부(187쌍)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37.4세($SD = 4.22$)였으며, 남편은 39.0세($SD = 4.16$), 아내는 36.4세($SD = 3.87$)였다. 부부의 평균 결혼 기간은 12.7년($SD = 9.03$)이었고, 평균 자녀수는 2.79명($SD = 0.64$)이었다. 학력은 남성이 고졸 5.3%, 전문대졸 6.4%, 대졸 59.4%, 대학원 이상 28.9%이었고, 여성의 경우 고졸이 10.2%,

전문대졸 20.3%, 대졸 63.1%, 대학원 이상 6.4%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스트레스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김정희(1995)가 번안한 DeLongis, Folkman과 Lazarus (1988)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Daily Hassles Scale: DHS)를 사용하였다. 원래 DHS는 45개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나, 김정희(1995)가 한국 실정에 맞게 9개 문항을 제외하고 36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은 하루 동안 일상생활사건(예, 집안일, 환경,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지를 4점 척도(1점 = 전혀 아니다, 4점 = 아주 그렇다)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희(1995)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가 제안한 항목 묶기(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여 관측변수를 생성하였다. 만일 DHS의 36개 문항을 모두 사용해서 잠재변수(스트레스)를 구인할 경우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가 많아져서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전체 문항의 합 또는 평균으로 스트레스를 구인할 경우 한 개의 측정치로 잠재변수를 구인해야 하기 때문에 잠재변수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추정할 모수의 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잠재변수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Russell 등이 제안한 항목 묶기 방법을 채택하였다. 항목 묶기 방법

은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대우도법과 같은 추정 방법의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ttle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목 묶기 방법을 사용해서 36개 문항으로부터 4개의 부분합(스트레스 1, 스트레스 2, 스트레스 3, 스트레스 4)을 산출하고, 이를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로 사용하였다.

배우자지지

본 연구에서는 장춘미(2001)의 ‘부부의 지지 척도’를 토대로 배우자지지를 구인하였다. 장춘미(2001)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에 포함된 18개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Pasch와 Bradbury(1998)의 ‘사회적 지지 상호작용 분류체계의 분류에 대한 기술’ (Description of Codes from the Social Support Interaction Coding System) 중 부정적 지지행동(예: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함, 자신의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일 것을 고집함)으로 분류된 4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총 5개의 하위요인(정보적, 도구적, 존중감, 정서적, 부정적 지지) 22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춘미의 연구와는 달리 4개의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을 정보적 지지, 요인 2를 정서적 지지, 요인 3을 존중감 지지, 요인 4를 부정적 지지로 각각 명명하였다. 이중 부정적 지지를 제외한 3개 요인을 사용하여 지각된 배우자지지 수준을 측정하였다. 부정적 지지를 제외한 이유는 다른 하위요인 간 상관(.87 - .90)에 비해 부정적 지지와 나머지 하위요인 간 상관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33 - .37) 배우자지지의 단일차원성이 전제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춘미(2001)의 연

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정보적 지지 .94, 정서적 지지 .90, 존중감 지지 .92로 나타났다.

결혼만족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Busby, Christensen, Crane과 Larson(1995)의 개정된 부부 적응 척도(Adapted Dyadic Adjustment Scale: ADAS)를 남영주(200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ADAS는 Spanier(1976)의 부부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Busby 등이 재구성한 것으로, 동의, 만족, 응집 등 3개 영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는 배우자간에 가치관, 의사결정, 종교 등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6점 척도(1점 = 항상 불일치한다, 6점 = 항상 일치한다)로 평정한다. ‘만족’은 말다툼, 결혼에 대한 후회 등 결혼의 안정성과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 등을 6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 항상 그렇다)로 평정한다. 마지막으로 ‘응집’은 배우자와 관심사나 취미 활동 등을 공유하는 정도를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함께 일을 추진하는 정도를 6점 척도(1점 = 단 한 번도 없다, 6점 = 하루에 몇 번씩)로 평정한다. 남영주(2003)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영역 별 신뢰도는 응집 .89, 동의 .85, 만족 .84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자지지가 매개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Kenny(1996)가 제안한 APIM(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을 적용하였다. 이 때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해서 모형의 적합도 및 직간접 경로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뿐만 아니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그리고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함께 사용하였다. 한편,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직간접 경로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우선 스트레스 → 결혼 만족, 스트레스 → 배우자지 지, 배우자지 지 → 결혼만족에 대해 각각의 모형을 설정한 후, 모형의 적합도 및 직접경로들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배우자지지의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직간접 경로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른 이유는 통합적인 매개모형에서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변수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여 배우자 간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SPSS 15.0을 사용해서 기술통계치와 변수 간 상관,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7.0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 및 상관

모형검증에 앞서, 관측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

수를 산출하였다(표 1). 대체적으로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스트레스와 상대방 배우자가 지각하는 배우자지 지 간 상관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 상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또한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이 지각하는 배우자지 지가 자신의 결혼만족과 가장 큰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지각하는 배우자지 지와 결혼만족 또한 자신이 지각하는 배우자지 지 및 결혼만족과 상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20개의 관측변수들이 스트레스, 배우자지 지, 결혼만족 등 3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관측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킨다는 제언(Finch & West, 1997)에 따라 왜도와 첨도를 계산한 결과(표 1), 모든 변수들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 = 155, N = 187) = 350.776, p < .001$; CFI = .927; TLI = .911, RMSEA = .082. 또한 모든 잠재변수가 해당 관측변수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1$)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남편과 아내에 따른 관측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스트레스1 (남)	-																			
2.스트레스2 (남)	.483	-																		
3.스트레스3 (남)	.396	.493	-																	
4.스트레스4 (남)	.565	.379	.391	-																
5.정보적지지 (남)	-.361	-.077	-.105	-.263	-															
6.정서적지지 (남)	-.418	-.108	-.119	-.288	.895	-														
7.존중감지지 (남)	-.380	-.087	-.112	-.308	.869	.892	-													
8.응집(남)	-.448	-.214	-.174	-.395	.697	.672	.706	-												
9.동의(남)	-.525	-.276	-.216	-.389	.566	.564	.554	.751	-											
10.만족(남)	-.405	-.275	-.127	-.455	.501	.511	.519	.610	.619	-										
11.스트레스1 (아)	.166	.151	.115	.102	-.198	-.231	-.236	-.266	-.216	-.210	-									
12.스트레스2 (아)	.133	.250	.196	.102	-.103	-.136	-.132	-.141	-.149	-.214	.535	-								
13.스트레스3 (아)	.178	.260	.190	.034	-.068	-.095	-.068	-.070	-.063	-.036	.597	.396	-							
14.스트레스4 (아)	.260	.172	.147	.274	-.227	-.291	-.279	-.267	-.324	-.181	.518	.407	.215	-						
15.정보적지지 (아)	-.281	.013	.006	-.246	.505	.538	.568	.465	.439	.406	-.226	-.195	.045	-.314	-					
16.정서적지지 (아)	-.296	-.078	-.024	-.286	.540	.599	.583	.538	.471	.483	-.311	-.179	-.037	-.307	.881	-				
17.존중감지지 (아)	-.283	-.085	-.048	-.329	.520	.571	.571	.506	.435	.494	-.242	-.231	-.014	-.308	.888	.924	-			
18.응집(아)	-.267	-.124	-.070	-.202	.448	.475	.482	.552	.493	.504	-.290	-.251	-.087	-.335	.583	.555	.550	-		
19.동의(아)	-.197	-.057	-.011	-.141	.499	.528	.466	.436	.483	.406	-.341	-.187	-.025	-.434	.523	.564	.522	.520	-	
20.만족(아)	-.204	-.145	-.050	-.278	.401	.428	.455	.383	.411	.571	-.264	-.219	-.101	-.298	.509	.554	.551	.518	.593	-
평균	15.63	7.74	6.22	6.78	18.83	32.34	19.01	13.04	22.88	15.60	12.26	7.11	6.04	6.84	19.54	33.11	19.72	13.44	23.29	17.09
표준편차	4.98	2.44	2.16	2.13	6.48	8.90	6.11	4.37	6.67	4.27	4.44	2.68	2.34	2.34	5.90	7.99	5.78	4.19	5.87	3.74
왜도	.100	.185	.703	-.015	-.257	-.138	-.163	.443	-.319	-.214	.624	.615	1.009	.148	-.050	.274	-.009	.353	-.421	-.164
첨도	-.554	-.726	-.261	-.512	-.831	-1.09	-.883	-.684	-1.03	.043	-.455	-.267	.005	-.687	-.978	-.957	-.844	-.606	-.344	-.875

주. N = 187.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24보다 큰 경우 $p < .05$; .172보다 큰 경우 $p < .01$. (남) = 남편. (아) = 아내.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 =$

68, N = 187) = 155.899, $p < .001$; CFI = .920; TLI = .900, RMSEA = .082.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는 결혼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에 따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총 4번의 등가제약을 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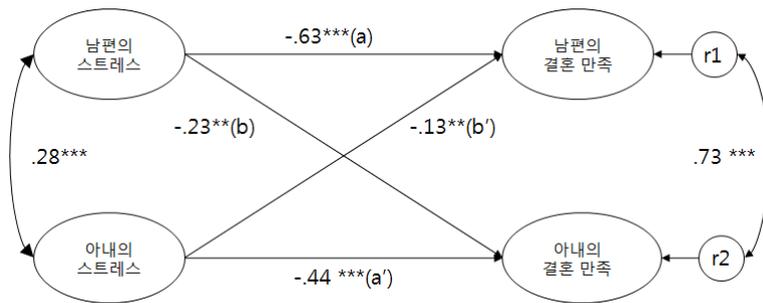


그림 3.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 $p < .01$. *** $p < .001$.

다: (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 비교($a=a'$), (2)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남편과 아내의 상대방효과 비교($b=b'$), (3)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a=b'$), (4)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a'=b$). 등가제약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등가제약 분석 결과, 첫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남편의 자기효과($\beta = -.63$)와 아내의 자기효과($\beta = -.44$)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에게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남편의 상대방효과($\beta = -.13$)와 아내의 상대방효과($\beta = -.23$)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방의 스트레스가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과 아내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자기효과($\beta = -.63$)와 상대방효과($\beta = -.13$)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남편의 경우 아내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보다는 남편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자기효과($\beta = -.44$)와 상대방효과($\beta = -.23$)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아내의 경우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만큼이나 남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도 아내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스트레스

표 2.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Model	χ^2	df	CFI	TLI	RMSEA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	155.899	68	.920	.900	.082	-
등가제약1($a=a'$)	174.813	69	.903	.871	.087	$\chi^2(1) = 18.91, p < .01$.
등가제약2($b=b'$)	156.944	69	.919	.893	.082	$\chi^2(1) = .105, p > .05$.
등가제약3($a=b'$)	174.229	69	.903	.872	.086	$\chi^2(1) = 18.33, p < .01$.
등가제약4($a'=b$)	156.378	69	.920	.893	.082	$\chi^2(1) = .048, p > .05$.

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보다 남편에게서 더 크고,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스트레스보다는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남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가 배우자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다음으로, 그림 4와 같이 스트레스가 배우자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chi^2(df = 68, N = 187) = 168.313, p < .001$; CFI = .946; TLI = .928, RMSEA = .089.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는 배우자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에 따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총 4번의 등가제약을 가했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스트레스가 배우자지지에 미치는 남편의 자기효과($\beta = -.37$)와 아내의 자기효과($\beta = -.22$)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상대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은 아내들에 비해 남편들에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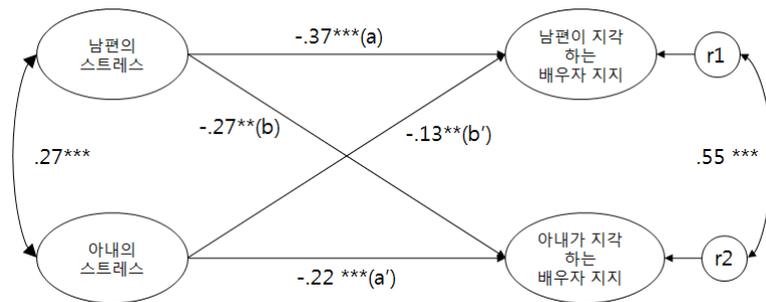


그림 4. 스트레스가 배우자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 $p < .01$. *** $p < .001$.

표 3.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Model	χ^2	df	CFI	TLI	RMSEA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	168.313	68	.946	.928	.089	-
등가제약1(a=a')	173.294	69	.944	.925	.090	$\chi^2(1) = 4.98, p < .05$.
등가제약2(b=b')	171.138	69	.945	.927	.089	$\chi^2(1) = 2.82, p > .05$.
등가제약3(a=b)	170.409	69	.945	.927	.089	$\chi^2(1) = 2.09, p > .05$.
등가제약4(a'=b)	173.743	69	.943	.925	.090	$\chi^2(1) = 5.43, p < .05$.

더 강함을 의미한다. 또한, 스트레스가 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남편의 상대방효과($\beta = -.13$)와 아내의 상대방효과($\beta = -.27$)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상대방으로부터 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남편이 지각하는 배우자지지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자기효과($\beta = -.37$)와 상대방효과($\beta = -.13$)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지각하는 배우자지지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자기효과($\beta = -.22$)와 상대방효과($\beta = -.27$)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아내의 경우 자신의 스트레스보다는 남편의 스트레스가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은 남편들에게서 더 강한 반면, 아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스트레스보다는 남편의 스트레스가 자신이 지각하는 배우자지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 = 45, N = 187) = 178.507, p < .001; CFI = .979; TLI = .969, RMSEA = .073$.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에 따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다른지를 검증하기 위해 총 4번의 등가제약을 가했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첫째,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남편의 자기효과($\beta = .69$)와 아내의 자기효과($\beta = .52$)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상대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은 남편들에게서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남편의 상대방효과($\beta = .14$)와 아내의 상대방효과($\beta = .36$)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 배우자가 지각하는 지지 수준이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과 아내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배우자지지의 자기효과($\beta = .69$)와 상대방효과($\beta = .14$)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에는 아내가 지각하는 배우자지지도는 남편 자신이 지각하는 배우자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배우자지지의 자기효과($\beta = .52$)와 상대방효과($\beta = .36$)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아내의 결혼만족도 또한 남편이 지각하는 배우자지지도는 자신이 지각한 배우자지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상대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은 남편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방이 지각하는 배우자지지도는 자신이 지각하는 배우자지지가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결혼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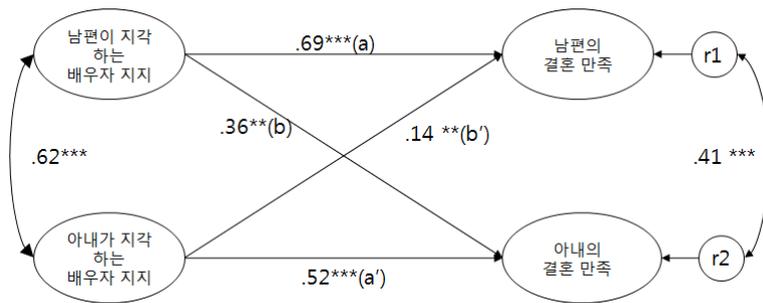


그림 5.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 $p < .01$. *** $p < .001$

표 4.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Model	χ^2	df	CFI	TLI	RMSEA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	178.507	68	.979	.969	.073	-
등가제약1(a=a')	183.112	69	.978	.968	.074	$\chi^2(1) = 4.61, p < .05$.
등가제약2(b=b')	178.518	69	.979	.970	.073	$\chi^2(1) = .009, p > .05$.
등가제약3(a=b')	184.465	69	.978	.968	.075	$\chi^2(1) = 5.96, p < .05$.
등가제약4(a'=b)	186.649	69	.977	.967	.075	$\chi^2(1) = 8.14, p < .01$.

배우자지지 매개모형 검증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트레스 → 결혼만족, 스트레스 → 배우자지지, 배우자지지 → 결혼만족에 대한 모형들이 모두 자료에 적합할 뿐 아니라, 모든 모형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와 개별 경로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부분매개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52, N = 187) = 316.53, p < .001$; CFI = .94; TLI = .92, RMSEA = .076. 또한 가설모형은 남편의 결혼만족 변량의 75%, 아내의 결혼만족 변량의 7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의 스트레스에서 아내의 결혼만족으로 가는 직접경로와 아내의 스트레스에서 남편의 결혼만족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artens(2005)의 제안에 따라 이 두 개의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χ^2 차이검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우선, 수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54, N = 187) = 316.15, p < .001$; CFI = .94; TLI = .93, RMSEA = .075.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 = 187) = 0.38, p > .05$. 따라서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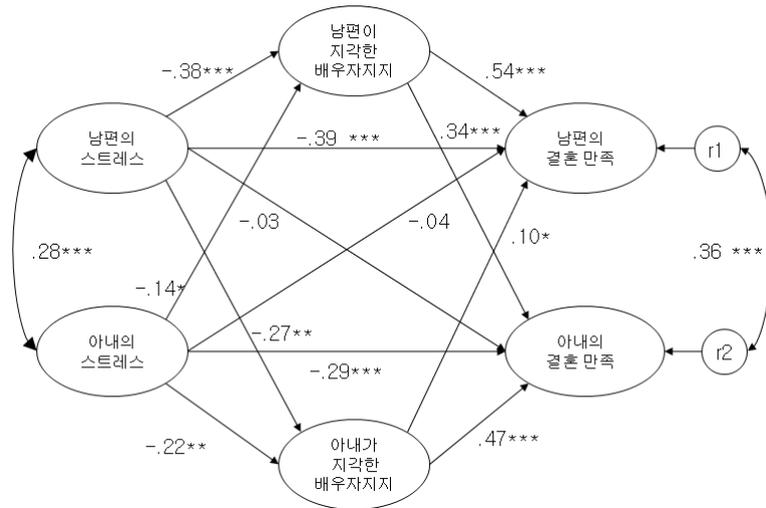


그림 6. 배우자지지 부분매개 모형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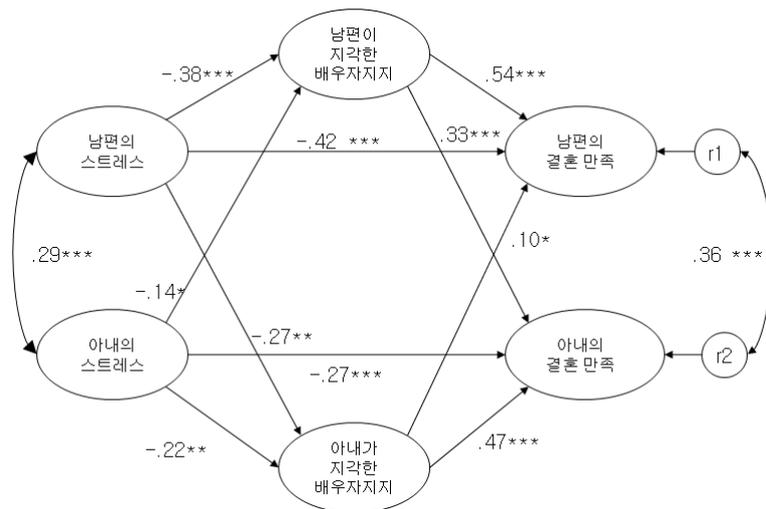


그림 7. 최종모형

* $p < .05$. ** $p < .01$. *** $p < .001$.

최종모형에서의 배우자지지 매개효과 및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최종모형에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와 스

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Sobel 검증(Baron & Kenny, 1986; Mackinnon, Warsi & Dwyer, 1995)을 실시

표 5. 간접효과,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검증 결과

			경로	β	Sobel Test(z)
직접 효과	자기효과	남편	스트레스(남)→만족(남)	-.42**	-
		아내	스트레스(아)→만족(아)	-.27**	-
간접 효과	자기효과	남편	스트레스(남)→지지(남)→만족(남)	-.21***(-.38 × .54)	-3.47
		아내	스트레스(아)→지지(아)→만족(아)	-.10**(-.22 × .47)	-2.42
	상대방 효과	남편	스트레스(남)→지지(아)→만족(남)	-.03 (-.27× .10)	-1.40
			스트레스(아)→지지(아)→만족(남)	-.02 (-.22 × .10)	-1.38
		아내	스트레스(아)→지지(남)→만족(남)	-.08 (-.14 × .54)	-1.64
			스트레스(아)→지지(남)→만족(아)	-.05 (-.14 × .38)	-1.56
		아내	스트레스(남)→지지(남)→만족(아)	-.13**(-.38 × .33)	-2.87
			스트레스(남)→지지(아)→만족(아)	-.13**(-.27 × .47)	-3.12
총 효과	남편	스트레스(남)→만족(남)	-.63***(-.42 + -.21)	-	
		스트레스(아)→만족(남)	-.10*(-.02 + -.08)	-	
	아내	스트레스(아)→만족(아)	-.37***(-.27 + -.10)	-	
		스트레스(남)→만족(아)	-.26**(-.13 + -.13)	-	

주. 지지=배우자 지지; 만족=결혼만족; (남)=남편; (아)=아내. * $p < .05$. ** $p < .01$. *** $p < .001$.

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최종모형에서 간접경로는 총 8개가 존재하는데, 이 중 4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신의 스트레스가 자신이 지각한 배우자지지를 거쳐 자신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스트레스가 남편 또는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지지를 거쳐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두 개의 간접경로가 유의하였다. 한편, 남편의 스트레스가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26(-.13 + -.1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 .01$), 아내의 스트레스가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 또한 $-.10(-.02 + -.08)$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남

편과 아내의 스트레스는 상대방의 결혼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배우자 지지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총 4개의 경로(직접경로 2개, 간접경로 2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우선, 남편의 결혼만족에 대한 자기효과는 직접효과(-.42)와 간접효과(-.21)를 합해서 총 $-.63$ 이었고($p < .001$), 아내의 결혼만족에 대한 자기효과는 직접효과(-.27)와 간접효과(-.10)를 합해서 총 $-.37$ 이었다($p < .001$). 즉,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지만, 이러한 경향은 남편들에게서 더 강하

게 나타났다. 한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총 6개의 간접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표 5), 이 중 남편의 결혼만족과 관련된 경로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반면, 아내의 결혼만족과 관련된 경로 중 두 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남편의 결혼만족은 아내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그보다는 남편 자신의 스트레스와 아내의 지지에 의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내의 결혼만족은 남편의 지지와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남편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대처 이론과 관련 선행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 관계를 배우자지지가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187쌍의 부부 자료를 토대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APIM을 적용하여 남편과 아내의 스트레스 및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남편과 아내 자신의 결혼만족도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자신의 결혼만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만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시연, 서영석, 2008; 장춘미, 2001; 전영민, 2000)와 일치한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부부 상호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Bolger, DeLongis, Kessler, & Wethington, 1989; Repetti, 1989)와도 일치한다. 한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아내보다 남편에게서 더 크고, 아내의 스트레스보다는 남편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내들에 비해 남편들의 결혼만족도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선행연구(김시연, 서영석, 2008; 전영민, 2000; Whiffen & Cotlib, 1989)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가 배우자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고 있다고 지각할 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자신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느끼는 지지수준 또한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상대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은 남편들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시연과 서영석(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아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스트레스보다는 남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자신이 지각하는 배우자지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지각하는 배우자지지는 남편 자신의 스트

레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아내가 지각하는 배우자지지는 자신의 스트레스보다는 남편의 스트레스에 의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뿐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 또한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배우자지지의 자기효과는 배우자지지와 결혼만족 간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김미례, 2006; 김시연, 서영석, 2008; 장춘미, 2001; Burke & Weir, 1982; Cutrona,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성차를 검증한 결과, 남편들의 자기효과가 여성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방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은 남편들에게서 더 강함을 의미한다. 또한,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방이 지각하는 배우자지지도는 자신이 지각하는 배우자지지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관계를 배우자지지가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남편과 아내 각각의 스트레스에서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이르는 직접경로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경로들을 제외한 수정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가설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고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 및 결혼만족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남편과 아내의 스트레스는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당사자들의 스트레스가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스트레스는 자신의 결혼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이 지각하는 배우자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배우자지지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Simons 등(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 관계를 배우자지지가 부분매개한다고 보고한 김시연과 서영석(2008), 장춘미(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최종 매개모형에서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편들에게서는 자기효과가 더 큰 반면, 아내들에게서 상대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남편의 결혼만족은 남편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자신이 지각하는 아내의 지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아내의 결혼만족은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자신이 지각한 남편의 지지뿐만 아니라 남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관계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Acitelli & Young, 1996),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상대방의 행동을 더 민감하게 지각한다(Floyd & Markman, 1983)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남편보다 아내가 상대 배우자의 행동이나 상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이 지각하는 배우자지지가 자신의 결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내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아내들은 남편이 자신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여길수록 아내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들의 경우 상대방이 제공하는 행동(지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자신의 행동(지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내들의 심리적 만족이 남편이나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지지보다는 자신이 남편이나 타인들에게 제공하는 지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최근 연구결과(Brock & Lawrence, 2008; Vaanane, Buunk, Kivimaki, Pentti, & Vahtera, 2005)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내들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신이 제공한 지지를 상대 배우자가 지각하는 것이 자신의 결혼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실제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우선, 연구 결과 스트레스가 결혼 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 장

면에서 부부의 결혼적응 및 만족을 주요 문제로 다룰 경우 결혼당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8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부부 대처 향상 훈련(Couples Coping Enhancement Training: CCET)은 의사소통 기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 기술을 부부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Bodenmann, Charvoz, Cina & Widmer, 2001). 이 훈련에서는 우선 각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인지재구조화 및 이완훈련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운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대화하는 방법이나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 실제 CCET를 실시한 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한 결과, 참여집단의 1년 후 결혼만족도가 통제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odenmann, Charvoz, Cina & Widmer, 2001). 따라서 결혼적응 및 만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권장함으로써, 각자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는 전략들을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인식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스트레스원(stressor)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서로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 커플 간 협력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면 결혼적응 및 만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배우자지지가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 관계를 매개할 뿐 아니라, 자신 및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각된 배우자지지는 스트레스보다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당사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배우자지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증진시키는 노력이 부부 상담프로그램의 주요 요소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로서 부부 간 지지와 협력을 강조하고, 배우자 간 상호지지가 외부 사건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결혼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담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이 지각하는 배우자지지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신이 제공하는 지지를 상대방 배우자가 얼마나 지각하고 있느냐 또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내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제공되는 지지를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내의 결혼만족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혼생활 적응 및 만족을 다루는 부부상담 과정에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지지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관련 기술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당사자 특히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지와 그러한 지각을 적절한 방식으로 아내에게 표현할 것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결혼만족 관련 연구와는 달리, 부부의 짝 자료와 APIM을 활용하여 스

트레스와 배우자지지가 자신 및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역동적 과정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남편과 아내를 상담할 때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과 성별에 따라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고학력 부부들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부부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배경(지역, 학력 등)을 지닌 부부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가 재현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여자들을 모집했는데, 맞벌이를 하는 아내들이 과소 표집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내의 취업 여부에 따라 부부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 및 배우자지지, 결혼만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내의 취업 여부에 따라 구조모형의 적합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배우자 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다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결혼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별적이고 초점화된 개입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변인들을 측정했기 때문에,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들이 교육기관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설문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상관연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변인 간 양방

향의 인과적 관련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즉, 본 연구에서처럼 스트레스가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감소시키고 배우자지지가 다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결혼만족도가 높을 경우 배우자지지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와는 다른 연구 설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와 배우자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조작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서로 다른 처치를 가했을 때 집단 간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07).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미례 (2006). 기혼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및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시연, 서영석 (2008).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부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45-1267.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역 (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Lazarus, R.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s,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서울: 대광문화사.
- 김정희 (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44-69.
- 남영주 (2003). 삼, 사십대 기혼 남녀의 성 의미 유형과 결혼만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0.
- 성한기, 손영화 (2007).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이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75-196.
- 이회숙, 박경(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71-689.
-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영민 (2000).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에 관한 취약성-스트레스-적응 통합모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8). 2007년 이혼통계결과. <http://www.nso.go.kr>
-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35-952.
- 현경자 (2007). 기혼자의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 결혼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137-160.
- 홍세희 (2000). 문항반응 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워크샵 교재. 한국임상심리학회.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모형의 기초와 응용. 워크샵 교재. Department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Acitelli, L. K., & Antonucci, T. C. (1994). Gender differences in the link between marital support and satisfaction in olde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688-698.
- Acitelli, L. K., & Young, A. M. (1996). Gender and thought in relationships. In G. Fletcher and J. Fitness(Eds.), *Knowledge structures and interactions in close relationship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pp.147-16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eman, D. G., (1993). *Child abuse and its effects on affect and social cognition as mediated by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Bodenmann, G., Charvoz, L., Cina, A., & Widmer, K. (2001). Prevention of marital distress by enhancing the coping skills of couples: 1-year follow-up study.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 3 - 10.
- Bolger, N., DeLongis, A., Kessler, R. C., & Wethington, E. (1989). The contagion of stress across multiple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75-183.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89).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Prospective mediating processe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119-143.
- Bradbury, T. N., Frank, F. D., & Beach, S. R.(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64-980.
- Brock, R. L., & Lawrence, E. (2008).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tress spillover in marriage: Does spousal support adequacy buffer the effec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 11-20.
- Busby, D. M., Christensen, C., Crane, R. D., & Larson, J. H. (1995). A 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or us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onstruct hierarchy and multidimensional sca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 289-308.
- Burke, R. J., & Weir, T. (1982). Husband-wife helping relationships as moderators of experienced stress: The “mental hygiene” function in marriage. In H. I. McCubbin, A. E. Cauble, & J. M. Patterson(Eds.),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p.221-238).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Cohan, C., & Bradbury, T. N. (1997) Negative life events, marital interaction, and the longitudinal course of newlywed marri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14-128.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9-357.
- Cohen, S., & Kessler, R. C., & Gordon, L. U. (1995). Strategies for measuring stress in

- studies of psychiatric and physical disorders. In S. Cohen, R. C. Kessler, & L. U. Gordon(Eds.), *Measuring stress: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pp.3-2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 101-109.
- Cook, W. L., & Snyder, D. K. (2005). Analyzing nonindependent outcomes in couple therap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133-141.
-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as a determinant of marital quality: The interplay of negative and supportive behavior. In G. R. Pierce, B. R. Sarason, & I. G. Sara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p. 173-194). New York: Plenum Press.
- Dehle, C., Larsen, D., & Landers, J. E. (2001). Social support in marriag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9*, 307-324.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439-485.
- Floyd, F. J., & Markman, H. J. (1983). Observational biases in spouse observation: Toward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450-457.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Gilford, R., & Bengtson, V. (1979). Measuring marital satisfaction in three generations: Positive and negative dimens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387 - 398.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orchoff, S. M., John, O. P., & Helson, R. (2008). Contextualiz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during middle Age: An 18-year longitudinal study. *Psychological Science, 19*, 1194-1200.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
- Julien, D., & Markman, H. J. (1991).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s as determinants of individual and marital outcom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549-568.
- Julien, D., Markman, H. J., & Lindahl, K. M. (1989). A comparison of global and microanalytic coding systems: Implications for future trends in studying interactions. *Behavioral Assessment, 11*, 81-100.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arney, B. R., & Bradbury, T. N. (2000). Attributions in marriage: State or trait? A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95-309.
- Kenny, D. A. (1996). Models of interdependence

-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 279-294.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pp.100-111, 144-150, 170-182). New York: Guilford Press.
- Lazarus, R. S., DeLongis, A., Folkman, S., & Gruen, R. (1985). Stress and adaptational outcomes. *American Psychologist*, 40, 770-779.
- Little, T. D., William, A. C., Golan, S., & Keith, F. W.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151-173.
- MacKinnon, D. P., Warsi, G., & Dwyer, J. H. (1995). A simulation study of mediated effect meas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0, 41-62
- Madathil, J., & Benshoff, J. M. (2008). Comparison of importance of marital characteristics and marital satisfaction for Asian Indians in arranged marriages and Americans in marriages of choice. *The Family Journal*, 16, 222-230.
- Martens, M. P. (2005).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3, 269-298.
- Pasch, L. A., & Bradbury, T. N. (1998). Social support,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marital dysfun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219-230.
- Repetti, R. (1989). Effects of daily workload on subsequent behavior during marital interaction: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and spouse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316-331.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 - 29.
- Roberson, Q. M., Moye, N. A., & Locke, E. A. (1999). Identifying a missing link between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585-93.
- Rosen-Grandon, J. R., Myers, J. E., & Hattie, J. A.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haracteristics, marital interaction processe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1), 58-68.
- Shrout, P. E., & Bolger, N.(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imons, R. L., Lorenz, F. O., & Wu, C. (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68-381.
- Solomon, Z., Dekel, R., & Zerach, G. (2009).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marita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forgiveness. *Family Process*, 48, 546-558.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Vaananen, A., Buunk, B. P., Kivimaki, M., Pentti, J., & Vahtera, J. (2005). When is it better to

- give than to receive: Long-term health effects of perceived reciprocity in support ex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176-193.
- Vinokur, A. D., & van Ryn, M. (1993). Social support and undermining in close relationships: Their independent effects on the mental health of unemployed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50-359.
- Whiffen, V. E., & Cotlib, I. H. (1989). Stress and coping in marit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 327-344.
- 1 차원고접수 : 2010. 4. 26.
심사통과접수 : 2010. 6. 15.
최종원고접수 : 2010. 6. 24.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Perceived Marit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Testing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Stress and Perceived Marital Support

Si Yeon Kim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l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marital support on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also investigating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stress and perceived marit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A convenience sample of 187 married couples was employed. First, structural equation analyses revealed that for both wives and husbands, stress had negative actor and partner effects on perceived marit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Second, results revealed that for both wives and husbands, perceived marital support had positive actor and partner effects on marital support. In addition, when a mediation model was considered, the link between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perceived marital support for both wives and husbands. Interestingly, it was found that for husbands the actor effects of stress and perceived marital support were greater than their partner effects, whereas for wives the partner effects were greater than the actor effect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 : stress, perceived marital support, marital satisfaction, actor effect, partner effect